

'농악이 공연예술로 나아가야 할 길'

눈명창·귀명창 프로젝트 '공연 예술로의 농악평론' 심포지엄

오는 17일 오후 1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공연 예술로서의 농악평론 심포지엄'이 열린다. 고창농악보존회는 2018 농악 눈명창·귀명창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농악이 공연예술로서의 농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대의 농악단체들이 전통형식의 공연활동 뿐만 아니라 그 해체 및 재해석 그리고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창작공연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요즘, 변화

하는 농악공연과 축제 양상을 되짚어 보고, 공연예술로서 농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의 연희자 그리고 일반관객들이 함께 소통하고자한다. 이운선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장의 '무형 유산에 대한 비평의 필요성', 김영희 전통춤이론가의 '농악과 비평', 송기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의 '고창농악보존회 성립 이후 공연활동에 대한 비평'이라는 주제로, 이경엽 목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성(마

담극 연출가), 시지은(경기대 강사), 이명진(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사), 이명훈(고창농악보존회장), 주영룡(고창농악보존회 기획팀장), 홍예림(고창농악 교육예능팀)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고창농악보존회 관계자는 "민속학과 공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연희자들, 그리고 연간 다양한 농악의 현장을 눈여겨 봐왔던 눈귀명창서포터즈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악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가 지난 13일 아시아문화원과 '무대공연 제작기술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세계적 실력 갖춘 학생 양성위해 최선의 지원 다할 것"

전주대-아시아문화원, 무대공연 제작기술 인재육성 협약... 현장실습·전문교육 등 취업까지 이어져

전주대는 지난 13일 아시아문화원과 '무대공연 제작기술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과, 박승환 문화융합대학장, 아시아문화원 김희정 콘텐츠사업본부장, 양필주 무대기술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무대공연 제작기술 취업실무역량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지원 △아시아문화전당 견학, 강의, 실습 진행

△기타 취업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공동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시아문화원 김희정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세계적인 규모의 무대시설을 갖춘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주대 학생들이 무대공연 제작기술 실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 학생들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대공연에 필요한 전문교육인 공연제작, 무대감독, 조명과 음향 등에 대한 현장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며, 성취도에 따라

취업도 연계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은 "세계적인 규모의 아시아문화원과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 맺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전주대 음악학과 학생 15명이 아시아문화원의 무대공연 제작기술 12주 전문 과정을 수료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서 2년 동안 총 4회의 취업실무역량프로그램이 추가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베스트셀러 동화가 창극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마당을 나온 암탉' 무료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베스트셀러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원작으로 하는 창극 '마당을 나온 암탉'을 오는 29일과 30일 오후 7시 30분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2008년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어린이음악극으로 제작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연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지기학 예술감독이 대본과 연출을 맡고, 작창에는 중앙대학교 한승석 교수, 작곡에는 김백찬이 참여하여 전통 판소리를 담은 창극으로 변신을 꾀했다.

공연은 선착순 전화(063-620-2324~5) 및 카카오톡(국립민속국악원 친구 추가)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



namwon.gugak.go.kr) 혹은 전화(063-620-232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재효 판소리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연구

고창 판소리 학술 발표회

17일부터 고창군립도서관서

동리 신재효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제14회 고창 판소리학술발표회'가 17일과 18일에 걸쳐 고창군 주최, 판소리학회(손태도 교수, 서울대) 주관으로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열린다.

이번 판소리학술발표회의 기획주제는 '오늘날, 고창이 신재효 판소리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연구'로 17일에는 서종문(경북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로 '신재효 시대와 고창의 판소리 문화'가 발표된다.

아울러 김종철(서울대)교수의 '신재효 자료집 편찬의 필요성과 그 활용방안'을 시작으로 '고창의 판소리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고창 현지를 중심으로'(전북대 박물관 김성식), '고창 판소리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정책 제시를 중심으로'(서울대 손태도) 등 의미 있는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18일에는 자유주제 발표로 '판소리 소통 개발원의 시대적 공감과 구성'(성균관대 임형택), '1930년대 창극 개념 형성과 레퍼토리 재고찰'(연세대 김환), '판소리 서사의 재맥락화를 위한 고창-인당수사랑가를 중심으로'(건국대 권도영)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판소리학술발표회를 통



해,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 연구와 후원에 불후의 업적을 남긴 동리 신재효 정신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사업에 반영하여 판소리 성지로서의 고창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며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